



22대 총선 격전지
광진을
오신환vs고민정
04



Life

와사비 맛에
계란모양까지
아이스크림의 진화
니



“국가 위한 희생에 보상 필요... 보훈 알리는 ‘알리미’ 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안종민 행정사

“새벽에 잠에서 잠에서 깬 때면 저같이 부상당한 유공자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아픈 무릎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

안종민 행정사는 매일 새벽을 통증으로 시작한다. 무려 27년 전에 다친 상처인데도 여전히 아프고, 겨울에는 심한 냉증과 함께 밤새 몇번이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 행정사는 다른 사람들 아픔에 더 관심이 많다. 틈만 나면 직접 만든 SNS와 ‘국가유공자닷컴’을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살펴며 새로운 상이 사례를 찾아 나선다. 충분한 국가 보상이라도 받도록 해주고 싶어서다.

안 행정사는 스스로도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돕는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나 소방 등 국가 기관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하고도 잘 모르고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일을 시작했다.

안종민 행정사는 1999년 학군단 37기로 임관한 군인 출신이다. 장갑차에서 떨어지고 훈련 중 산을 구르는 사고까지 당해 무릎을 심각하게 다쳤다. 결국 2007년 대위로 전역하고 늦은 나이에 처음 사회에 나오게 됐다.

첫 직장은 평범한 회사였다. 취업이 되지 않던 소개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어렵게 시작했다. 상이 군인은 연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5년 쯤 지났을까, 문득 국가 유공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한탄을 했다. 미리 정보만 있었어도 고통에 어려운 삶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것도 몰랐네라는 생각이 시작이었다. 상이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지원과 혜택을 끈질기게 요구했으면 좋은 곳에도 취업할 수 있었지만, 나는 정보가 너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국가 유공자 혜택과 법률, 규정 등을 다시 공부하고 국방부 상이연금도 다시 신청했다.”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시간을 할애해 공부하고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이야기하며 토의하고 잘못된 보훈 정책들을 찾아다니느라 지쳤다. 그런데도 상이 연금을 2번이나 탈락했다. 국가 유공자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례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중에 알게 된 연간 상이군인이 4만5000여명, 그중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안 행정사가 국가유공자들을 돕기 시작한 계기다. 상이를 입은 후배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군에서 다쳤는데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야기였다. 대한민국 보훈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분노했고,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을 돕기로 했다.

이후 안 행정사는 운명처럼 보훈 전문 행정사가 됐다. 처음 주변 사람들부터 돕기 시작한게 2017년, 이듬해 회사에서 행정사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외국인 노동자 취업 업무를 맡게 됐고 결국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코로나19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완전히 행정사로 일을 하게 됐다. 2021년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부친 병간호를 하게 됐지만, 국회에서 보훈컨퍼런스 발표를 하거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에 분노해 거리에서 60일 가랑 시위를 나가는 등 밤낮 없이 지냈다.

안 행정사가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다. 안 행정사는 우연히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만났다가, 여전히 PTSD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2019년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을 맡았고 여러 장병들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0년 3월 3일 고속정에서 수류탄 폭발로 두눈과 오른쪽 팔목을 잃은 김홍수 상사도 안 행정사가 지원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생존했지만 여전히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참전 용사 2명도 있다.

“2022년 제2연평해전 20주기를 기념



안종민 행정사가 소방관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



**부상으로 인한 군 전역 후 보상 못받아
지원정보 부족... 혜택 받기도 어려워
국가유공자 위한 보훈전문 행정사로
천안함·연평해전 등 유공자 인정 도와**

**보훈제도 변화에도 정보부족 여전히
군부대, 소방관 돌며 정보 알리고파**

으로 아직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참전용사가 2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의무복무자인 병사인 탓에 정보를 전혀 몰랐고 신청을 해도 탈락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직접 연락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도왔다.”

안 행정사는 이런 노력으로 ‘국가보훈전문가’라는 별명도 얻게 됐지만, 여전히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재조명되면서 국가 보훈 제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군대에서는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안 행정사가 직접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장병들을 위해 ‘지식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상담 요청을 받고 있고, 유명 군인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에 출연해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보상’도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유공자보상닷컴을 직접 운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받고 상담해준다.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서부터 직업군인을 꿈꿨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어쩔 수 없이 전역을 선택하던 때라고 회상하는 안 행정사다. 심지어는 가장 보람있었던 경험으로도 처음 군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했을 때를 가장 먼저 꼽는다. 그런 국가에 스스로 상처를 입었고, 또 상처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일이 쉬울리가 없다.

그럼에도 안 행정사는 마음을 굳게 먹는다.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분들의 열악한 처우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회에서도 좀처럼 관련 법안을 통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정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일을 하면 할 수록 국방부와 보훈부, 입법기관 모두 국민 기대치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국민들 모두가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고 있지만, ‘1계급 특진과 훈장 수여’ 같은 말뿐인 조치만 보고 국가유공자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만큼 진급이고, 연금은 사망전 계급으로 지급하는 등 아무런 보상이 없는 셈인데 말이다. 실무자는 전사와 순직을 ‘끝난 문제’로 인식하고 외면한다.”

보람도 크다. 안 행정사는 오랜 꿈인 군인이 됐을 때만큼 국가유공자 공익 활동을 시작한 당시를 좋은 기억으로 떠올렸다. 2018년故 유호철 대위, 2020년 천안함 참전용사, 2022년 제2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이 국가유공자가 됐을 때를 행복했던 순간으로 회상했다.

그래서 안 행정사는 보훈 신청을 망설이는 상이 군인들을 위해 힘을 낸다. 젊은 나이에 국가 부름으로 헌신하다 부상을 당했는데도 장애인으로 숨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찾아 보상과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비판도 망설이지 않았다.

“고통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줘야 한다. 부상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예우를 하지 않으면 부상당한 본인과 가족까지도 국가를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

안 행정사 꿈은 오히려 소박했다. ‘대한민국 보훈전문가 안종민 행정사’라는 타이틀. ‘보훈알리미센터’라는 첫 SNS 간판처럼 보훈 알리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가유공자보상닷컴’을 더 많이 알리고 시스템을 갖춰 편하고 정확하게 보훈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다. 정책과 법률을 직접 관리하는 자리도 욕심을 냈다.

“최근 전국 소방안전공무원 노조 요청으로 강의를 했는데, 많은 질문을 받으며 현장에서는 보훈과 보상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알리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시간이 허락하면 전국 팔도 군부대와 소방관서를 돌며 강연을 하고 싶다. 또 미래에는 희생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경북서 ‘2024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 성료...6457명 참가
▲스노보드 월드컵서 ‘배추보이’ 이상호 최종전 우승 /사진 뉴시스

▲전국노래자랑에 ‘30년 가수’ 윤도현도 게스트로...로커 출연 이레적
▲테니스 논타부리 국제주니어 대회서 유망주 김장준·정연수 우승



▲배드민턴 안세영, 프랑스 오픈 단식서 라이벌 꺾고 극적 결승 진출 /사진 뉴시스
▲영화 파묘, 개봉 17일만 관객 750만 돌파...1000만 기대도 커져